

영암군 주민·이주민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 박차

삼호읍에 외국인주민센터 개소

외국인주민 비율 12.7%

교육·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영암군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외국인 주민이 많은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 내에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등 거주 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에 영암군이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 총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육실·상담실·센터 등을 갖춘 외국인 주민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열린 개소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위원장, 양복환 세한대학교 부총장,

외국인모니터링 단원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센터는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영암군이 주관하고 세한대학교에서 3년간 수탁 운영한다. 영암군이 올해 센터에 지원한 위탁 운영 보조금은 9400만원이다. 센터는 외국인 주민 민관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할 방침이다.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외국인 주민에게 교육·상담·통역·번역 서비스 제공과 문화·체육·네트워크 지원 등을 담당한다.

영암군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등록외국인 통계 기준 12.7%(지난 1월 기준)로 전남도 평균 2.4%와 대비해 높은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 규제 완화와 조선업 호황, 농촌 인력 수요 등으로 영암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도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인 주민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서 영암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의 개소는 외국인 주민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과 센터는 개소식을 진행한 뒤 '영암군 외국인 모니터링 단위 2분기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참가자들이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군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초법률을 익히고,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권·법률·생활안전 교육'을 추진한다.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선주민·이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암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최근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 안에 문을 열고 우승희(가운데) 영암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진도군 물김 위판액 1152억원...전년 대비 7%↑

채묘시설·냉동보관시설 등 지원 꾸준한 어장 관리로 생산량 증가

진도군은 2023년산 물김 생산을 종료한 결과, 총 9만 5225t을 위판해 1152억원의 위판액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물김 위판액 1078억원에 비해 생산량이 7% 증가해 진도군 수협은 전국 수협 중 가장 많은 위판고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진도에서는 지난해 바다 수온 불안정 등으로 생산량 증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 생산 어업인들의 꾸준한 어장관리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진도 김은 적조가 없는 청정바다에서 생산돼 미세알과 칼슘이 풍부하고 몸의 독소 배출·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블랙푸드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고품질의 원초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어장별 해양환경 특성 조사와 김양식 어업인 기술지도 위탁사업을 체결, 어업인 현장



김양식어가들이 물김 위판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지도를 실시한 결과 생산량 증가에 기여했다.

또 20억원 투입해 김 육상 채묘시설 신설과 함께 10여개의 중형 냉동보관시설 지원 등을 통한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진도군 관계자는 "김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김 가공시설 등에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농협 완도군지부·완도농협 전남도 체육대회 현장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

완도에서 열린 62회 전남도 체육대회가 지난 15일 마무리한 가운데 농협 완도군지부가 전남체전 현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사진> 농협 완도군지부와 완도농협은 개막식이 열린 완도군 공설운동장을 찾아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홍보 공간에서는 완도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쓰고, 기부자는 세계 혜택과 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등에서 낼 수 있다.

김진수 농협 완도군지부 지부장은 "완도에서 열린 전남체전을 계기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해남군, 평생학습 기반구축 공모사업 3건 선정...8000만원 확보

성인문해·생태 교육 등 추진

해남군이 평생교육 분야에서 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라남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이다.

특히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전남의 특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시군별 생태학습도시 브랜드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 친환경 인프라와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 후 주민의 생활권 중심 생태환경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생태환경교육 전문인력(자원순환교육지도사) 양성, 학습자 맞춤형 생태환경교육 운영, 생태환경 보존 실천 운동 등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문해교육 지원과 전문인력인 문해교육사를 양성해 평생교육 기반 구축도



해남 송지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평생학습으로 한글교육을 받고 있다. <해남군 제공>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평생교육 관련 4개 공모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평생학습관 정규 과정 및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382개 과정, 1600여명의 군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해남군 평생학습관

로 문의(061-530-5396)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단순한 여가선용에서 벗어나 삶과 학습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경 기자 dia@kwangju.co.kr

6월10일 '무안 글로벌 외국인 가요제'

황토갯벌축제 행사...28일까지 신청

4년 만에 대면 개최하는 '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행사의 하나로 '무안 글로벌 외국인 가요제'가 오는 6월10일 열린다.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는 황토갯벌축제 행사의 하나로 무안 글로벌 외국인 가요제를 다음 달 10일 오후 6시에 황토갯벌랜드 주무대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가요제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래와 춤, 공연 등 자신의 끼를 자유롭게 펼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자신의 장기를 뽐낸 간단한 동영상만 만들어 전자우편

(gfnevent2023@gmail.net)으로 내면 된다.

가요제 신청자 가운데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다음 달 10일 경연에서는 1등 상금 100만원을 포함해 모두 500만원의 상금을 준다. 경연장에서는 가수 신유, 김혜연, 율라라세션 등이 축하 무대에 오른다.

조영희 무안군 관광과장은 "10여 년 만에 개최되는 외국인 가요제가 전국의 실력 있고 끼 있는 많은 외국인이 참가하여 경쟁력 있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이달 말까지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박물관은 오는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문학관 옥상에서 '영화가 있는 문학관' 행사를 연다. 문학관 전경. <목포시 제공>

목포문학관 10월까지 '영화가 있는 문학관'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영화 상영

목포문학관이 오는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영화가 있는 문학관' 행사를 연다.

영화가 있는 문학관은 오는 25일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총 5차례에 걸쳐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관협회 후원 '2023년 지역문학관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영화가 있는 문학관 행사에서는 노을을 배경

으로 야외 옥상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25일 상영작은 '태어나길 잘했어'이다. 이어 6월 '여성, 그 시선을 넘어', 7월 '영화 속 여행' 등을 주제로 상영이 진행된다. 9월에는 목포문학박람회와 연계해 '스크린 속 문학'을 진행하고, 10월26일에는 영화 상입곡을 듣고 함께 즐긴다.

상영회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목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1.5% 보전 지원

보증 수수료 0.8%도 환급

영광군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4420만원으로, 지난해 지원금액(3800만원·276명)보다 16.3% 늘었다.

올해는 모두 2500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액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는 19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광에 사업장을 두고 올해 1월1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경영안정자금 등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이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소상공인이 1년간 낸 이자의 1.5%, 보증 수수료의 0.8%를 돌려줄 방침이다.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난해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가 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일 월부터 최장 1년간 이자 지원을 받는다.

이자·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6월9일까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061-350-5466)로 하면 된다.

대출받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액을 확인한 뒤 이자 납일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영광=이중수 기자 jyilee@kwangju.co.kr